

원측 『해심밀경소』 「심의식상품」 역주(2) - 텍스트 교정을 겸해 -

장규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해제

이번 회 연재분은 「역주1」의 ‘식의 종류(수)’에 이어 ‘이름 해석(=정의)’, ‘본질(=다른 체계 상의 귀속)’, ‘의지처’, ‘인식대상’, ‘동반하는 심리현상’ 등의 다섯 종류의 관점에서 여덟 식의 특성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경문의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심의식상품(心意識相品)」의 전체 주제가 심, 의, 식으로 불리는 ‘여덟 식’이므로, ‘여섯 종류의 관점에서 본 여덟 식의 일반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이 부분은 품명 주석(장규언 2013, 130-134)에 대한 보충 설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주석에서 주목할 점은 원측이 『성유식론』 속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요약하면서 필요한 문장을 적절히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해심밀경소』 저술 훨씬 이전에 『성유식론소(成唯識論疏)]를 저술하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성유식론』 속 다양한 해석을 숙지하였으며, 여기서 그 지식을 요약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역주에서는 한국어 번역에 조금 변화를 시도해 보았다. 이전 번역이 한문의 구문적 특징을 잘 보여주기 위한 직역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적지 않은 곳에서 자연스러운 현대 한국어 문장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였다. 때때로 압축적이고 유연한 한문 문장의 특징을 고려할 때, 직역보다는 창조적 번역이 훨씬 의미 전달

에 효과적이라고 느낄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같은 목적에서 한문 불교 용어의 한국어 번역도 다소 과감하게 시도하였다. 특히 경문의 단어나 문구에 대한 훈고적 정의나 주석을 제외한 일반적 해설 부분에 포함된 용어의 번역에서 조금 더 과감해지려 노력하였다.

2) 여덟 식(識)의 특성들[八識差別]

(1. 종류[種數(多少)])¹⁾

2. 이름 해석[釋名(字)](=정의)

X. 21 241a10-18; WX. 34 721a1-10:

言釋名者, 先通後別.

[여덟 식의 종류에 이어 둘째로 여덟 식의] 이름을 해석해 보려 하는데, 먼저 [八識이라는] 포괄적 이름을 해석하고, 이어서 [여덟 식] 각각의 이름을 해석하려 한다.

言八識者, 是其通名, 八謂標數, 識卽了別, 通性及相, 簡唯六識, 故言八識, 卽六釋中帶數釋也.

八識이 바로 포괄적 이름인데, [이 이름에서] 八은 [식의] 수를 명시한 것이고, 識은

* 이 역주는 2013년 8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된 강독 모임을 위해 필자가 작성한 발제문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 중 첫 부분을 2013년 12월 발간된 『불교학리뷰』¹⁴에 연재한 적이 있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공부도 지지부진하였지만, 이번을 계기를 다시 배움의 열정을 깨우고 싶어 용기를 내어 연재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이상민(현 고려대 박사), 진휴 스님(현 한중연 박사수료생) 두 학우가 함께 해주어 강독 모임을 이어갈 수 있었다. 늦었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물론 이 역주에 흠결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그 사이에 티벳어역과의 교감에 근거한 「심 의식상품」 전체의 텍스트 교정의 성과(이종철, 2015. 『해심밀경소』 심의식상품의 새로운 한문 교정본』 이종철의 공저, 『원측 『해심밀경소』의 심의식상품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5-74)도 나왔다. 함께 참조하면 원측 저술 당시 『해심밀경소』 텍스트와 최동이 본 사본의 원형에 조금 더 근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1) 「역주1」의 관련 부분(장규언 2013. 23-42) 참조

[식의 작용인] 식별[了別]을 지칭하므로, [여덟 식 모두가 이 식별이라는] 본질[性]과 특징[相]을 공유하는 셈이다. 하지만 [식별만을 본질로 하는] 한정적 여섯 식[唯六識](=제 1-6식)과 구별하기[簡] 위해서 八識이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八識이라는 포괄적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복합명사에 관한] 여섯 가지 해석 중 대수석(帶數釋)에 해당한다.

言名別者.

眼等六識, 皆依主釋, 謂依眼之識名爲眼識, 乃至依意之識名爲意識.

第七末那, 【此云意,】*如成唯識‘恒審思勝餘識故’. 若依此釋, 意即識故名爲意識, 是持業釋.

八阿賴耶, 【此云藏識,】*具有能藏所藏執藏義故, 此即如次, 果於因中藏, 因於果中藏, 境於執中藏, 具如『成唯識論』及『攝大乘』【此亦持業, 藏即識故.】*

[여덟 식] 각각의 이름에 대해 말해 보겠다.

안식(眼識) 등 여섯 식은 모두 의주석(依主釋)이다. 말하자면 안(眼)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식이라는 점에서 안식(眼識)이라 하고 ... 의(意, manas)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식이라는 점에서 의식(意識, mano-vijñāna^{**})이라 한다.

제7말나식(末那識, mano-vijñāna^{**})은 여기 [중국]에서는 의(意)라고 하며, 『성유식론』에서 말한 대로 ‘항상 깊이 따지는 활동[恒審思]이 여타 식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이다.’²⁾ 이 해석에 따르면 의가 곧 식이기 때문에 의식(意識)이라 한 것이니 지업석(持業釋)이다.

제8아뢰야식(阿賴耶識, ālayavijñāna)는 여기 [중국]에서는 장식(藏識)이라고 하며, 그 이유는 [아뢰야식이] 저장함[能藏], 저장됨[所藏], 집착되어 간직됨[執藏]의 의미를 모두 가지기 때문이다. 이것들(=능장, 소장, 집장)은 순서대로 [번뇌 영향 하의 현상[雜染(法)]이라는] 결과[果]가 [아뢰야식이라는] 원인[因] 속에 저장되어 있음, [아뢰야식이라는] 원인이 [번뇌 영향 하의 현상이라는] 결과 속에 저장되어 있음, [아뢰야식이라는] 인식대상[境]이 [아뜨만[自(內)我] 등으로] 집착되어 간직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것은 『성유식론』과 『섭대승론(攝大乘論)』³⁾에서와 같다. [장식이라는] 이 단어 역시 지업석

2) 『成唯識論』卷2 (T. 31, 19a29-b2 ... b7-11): 第二能變其相云何? 頌曰: 5次第二能變 是識名末那/ 依彼轉緣彼思量爲性相// ... 論曰: 次初異熟能變識, 後應辯思量能變識相. 是識聖教別名末那, 恒審思量勝餘識故. 此名何異第六意識? 此持業釋如藏識名, 識即意故, 彼依主釋, 如眼識等, 識異意故.

3) 『成唯識論』卷2 (T. 31, 7c14-15 ... c20-23): 且初能變其相云何? 頌曰: 初阿賴耶識 異熟一切種// ... 論曰: 初能變識大小乘教名阿賴耶. 此識具有能藏·所藏·執藏義故, 謂與雜染互爲緣故, 有情執爲自內我故. 此即顯示初能變識所有自相. 攝持因果爲自相故.

인데, 장(藏)이 곧 식이기 때문이다.

案: * 이 부분에 상응하는 티벳어역이 없는 이유는 중국어식 훈고가 티벳어 독자들에게 무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 동일한 복합명사 ‘mano-vijñāna’에 대해 전자(의주석)는 ‘manas에 의지하는 vijñāna’로, 후자(지업석)은 ‘manas인 vijñāna’로 다르게 해석한 셈이다.

*** 곱음괄호 속 보충은 언급된 각주3의 『성유식론』과 『섭대승론』 관련 구절(볼드 부분)에 근거하였다. 뒷부분의 『해심밀경』 경문 ‘제8식을 왜 아뢰야식이라 부르는가?’에 대한 주석(X. 21 246b5이하; WX. 34 731b3이하)에서 두 문헌을 직접 인용하여 藏의 세 의미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3. 본질[體性](=다르마 체계 상의 귀속[通])

X. 21 241a19-b4; WX. 34 721a11-b2:

言體性者, 且依三義⁴⁾, 一約三性, 二約三科, 三依法數.

본질에 대해 논할 경우 우선 세 의미와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첫째는 삼성(三性), 둘째는 삼과(三科), 셋째는 법수(法數)이다.

若依三性, 分別八識, 一一此<皆>⁵⁾通三性. 攝妄皈眞, 皆眞如故, 託因緣起, 皆名依他,

『攝大乘論本』 卷上, 「所知依分」(T. 31, 133b12이하): 此中最初且說所知依即阿賴耶識, 世尊何處說阿賴耶識名阿賴耶識? 謂薄伽梵於『阿毘達磨大乘經』(加他中說: 無始時來界 一切法等依/ 由此有諸趣 及涅槃證得//即於此中復說頌曰: 由攝藏諸法 一切種子識/ 故名阿賴耶 勝者我開示//如是且引阿笈摩證. 復何緣故此識說名阿賴耶識? 一切有生雜染品法於此攝藏爲果性故, 又即此識於彼攝藏爲因性故, 是故說名阿賴耶識. 或諸有情攝藏此識爲自我故.

4)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16.4-6: de la ño bo ñid bsatn pa yanre ñig don rnam pa gñis la brten nas bstan te/ ño bo ñid rnam pa gsum dan/ chos rnam pa gsum la brten nas bstan pahi phyir ro/)은 三性과 法數의 두 종류만을 나열하고 있어 현존 한문의 세 종류와는 차이가 있지만, 현존 한문도 法數를 따로 서술하지 않고 三科 속에 통합하여 논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최뎀이 본 사본에는 ‘且依二義 ... 二約三科’로 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한 듯하다. 후대에 三依法數가 추가되면서 二義가 三義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二義가 三義로 잘못 필사 또는 전승되면서 그에 따라 三依法數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 한문 문법과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16.7) thams cad kyan에 비추어 볼 때 此는 皆의 오기로 보인다.

隨執情有, 是所執性. 故『唯識』第九卷云, “謂唯識性⁶⁾ 略有二種, 一者虛妄, 謂遍計所執, 二者眞實, 謂圓成實. 復有二性, 一者世俗, 謂依他起, 二者勝義, 謂圓成實.”

삼성과 관련하여 여덟 식을 분석한다면, [여덟 식] 하나하나가 모두 삼성에 귀속된다. 왜냐하면 비존재[妄=虛妄分別]⁷⁾를 진실[眞=眞實]로 귀속시키는 관점에서 보면 [여덟 식은] 모두 진여(眞如)(=眞實性)이며, [여덟 식은]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여 생겨난다는 점에서 모두 의타(依他)라 부르며, [여덟 식은] 집착[執情]의 부산물로 존재할 뿐이라는 점에서 소집성(所執性)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유식론』* 제9권에서 “즉 유식성(唯識性)에는 대략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 비존재[虛妄]는 변계소집(遍計所執)을 의미하며, 둘째 진실(眞實)은 원성실성(圓成實性)을 의미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식성에는] 두 가지 본질[二性=二諦]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復**], 첫째 세상의 진리[世俗=世俗諦][로서의 본질]은 의타기성을 의미하며, 둘째 궁극적 진리[勝義=勝義諦][로서의 본질]은 원성실성을 의미한다.”⁸⁾ 라고 말한 것이다.

案: * 여덟 식의 삼성 귀속과 관련하여 『성유식론』의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문맥상 이때 復는 제2의 해석을 이끄는 접속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듯하다.

三科出體

五蘊門中, 八識皆用識蘊爲體

十二處中皆意處攝. 皆有無間滅依義故.

十八界中, 前五種識, 一一皆用自識界及眼界一分爲體, 第六七八三識一一皆用意識及眼界少分以爲自性.

삼과(三科)의 관점에서 [여덟 식의] 본질을 밝혀보겠다.

다섯 더미[五蘊]의 분류[門]를 적용해 보면, 여덟 식 모두 식별 더미[識蘊]를 본질로 한다.

열 두 영역[十二處]을 적용해 보면, [여덟 식] 모두 사유능력* 영역[意處]에 귀속된다.

6) 唯識性에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16.13)이 nram par rig pa tsam ñid가 아니라 nram par śes pa ñid인 점이 흥미롭다.

7)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16.7)은 妄을 虛妄分別(yañdag pa ma yin pañi nram par rtog pa)로 이해하고 있다.

8) 『成唯識論』卷9 (T. 31, 48a28-b3): 此性卽是唯識實性, 謂唯識性略有二種, 一者虛妄, 謂遍計所執, 二者眞實, 謂圓成實性, 爲簡虛妄說實性言. 復有二性, 一者世俗, 謂依他起, 二者勝義, 謂圓成實, 爲簡世俗 故說實性.

왜냐하면 [여덟 식] 모두 [현찰나의 현상이 생긴] 직후에 소멸하는 의지처[無間滅依]**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 여덟 기반[十八界]을 적용해 보면, 앞의 다섯 식 각자는 자기 식 기반[自識界]과 사유능력 기반의 한 부분[意界一分]***를 본질로 하며, 제678식 각자는 사유 기반[意識界]과 사유능력 기반의 일정 부분[意界少分]****를 본질로 한다.

案: * 12처의 일부인 意(manas)(=意根)를 ‘사유능력’으로, 그것의 인식대상인 法(dharma)을 ‘사유대상’으로, 같은 맥락에서 18처의 일부인 意識을 ‘사유’로 번역해 보았다. 여기서의 意識이 영어 consciousness의 번역어로 도입된 ‘의식’보다는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구별의 필요가 있다.

** 이어지는 ‘의지처(所依)’ 중 ‘인도자인 의지처[開導依]’의 설명에 따르면, 여덟 식 각각은 ‘전 찰나에 소멸한 사유능력[前滅意]’으로 기능하면서 현 찰나의 여덟 식 각각의 의지처가 된다.

*** 예컨대 현 찰나의 시각[眼識]의 경우, ‘의지처’ 중 ‘직접 원인인 의지처[因緣依]’인 ‘전 찰나의 시각 종자와 ‘전 찰나에 소멸한 사유능력으로 기능하는 전 찰나의 시각’을 지칭한다.

**** ‘사유능력의 일정부분’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4. 의지처[所依]

(1) 직접 원인인 의지처[因緣依]

X. 21 241b5-7; WX. 34 721b3-5:

辨所依者，八識所依，各有三種。

一因緣依，謂能親生八識種子。故『成唯識』第四卷云，“一因緣依，謂自種子。諸有爲法，皆託此依，離自因緣，必不生故。”⁹⁾

의지처에 대해 말해보면, 여덟 식의 의지처의 경우 각 [식마다]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직접 원인인 의지처[因緣依]는 직접 여덟 식을 발생시키는 종자를 말한다. 그

9) 『成唯識論』卷4 (T. 31, 19b22-28): 諸心心所皆有所依，然彼所依總有三種。一因緣依，謂自種子。諸有爲法，皆託此依，離自因緣，必不生故。二增上緣依，謂內六處。諸心心所，皆託此依，離俱有根，必不轉故。三等無間緣依，謂前滅意。諸心心所，皆託此依，離開導根，必不起故。唯心心所具三所依，名有所依，非所餘法。

래서 『성유식론』 제4권에서 “첫째 직접 원인인 의지처는 자기 종자[自種子]를 말한다. 모든 조건적 현상[有爲法]은 모두 이 의지처에 의존하므로, [만약 이] 자기의 직접 원인 [自因緣]이 없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2) 인도자인 의지처[開導依]

X. 21 241b8-10; WX. 34 721b6-8:

二開導依，謂前念滅自類八識，各望後念，爲開導依。故『唯識』云，“三等無間緣依，謂前滅意。諸心心所，皆託此依，離開導根，必不轉故。”

둘째 인도자인 의지처[開導依]는 전 찰나에 소멸한 자기 여덟 식을 지칭하며, 그 각 각이 후 찰나[의 여덟 식 각각]에 대해 인도자인 의지처가 된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 “셋째 등무간연인 의지처[等無間緣依]는 전 찰나에 소멸한 사유능력[前滅意]를 말한다. 모든 마음[心]과 심리현상[心所]은 모두 이 의지처에 의지하므로, [만약 이] 인도하는 인식능력[開導根]이 없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3) 동시 발생적 의지처[俱有依]

X. 21 241b10이하; WX. 34 721b8이하:

三俱有依，然俱有依，諸識不同。

眼等五識，各有四依。一同境根，謂眼等五根各望自識，二分別根，謂五識俱同緣意識，三染淨根，謂第七末那，四根本依，謂第八識。故『唯識』云，“由此五識俱有所依，定有四種，謂五色根六七八識。隨闕一種，必不轉故，同境分別染淨根本所依別故。”

第七末那俱有所依，唯有一種。故『唯識』云，“第七意識俱有所依，但有一種，謂第八識。藏識若無，必不轉故。”

第八賴耶俱有所依，亦唯一種。故『唯識』云，“阿賴耶識俱有所依，亦但一種，謂第七識。彼識若無，定不轉故，論說藏識恒與末那俱時轉故。”¹⁰⁾

10) 『成唯識論』卷4 (T. 31, 20c13-26): 由此五識俱有所依，定有四種，謂五色根六七八識。隨闕一種，必不轉故。同境·分別·染淨·根本所依別故。聖教唯說依五根者，以不共故，又必同境，近相順故。第六意識俱有所依，唯有二種，謂七八識。隨闕一種，必不轉故。雖五識俱取境明了，而不定有故非所依。聖教唯說依第七者，染淨依故，同轉識攝，近相順故。第七意識俱有所依，但有一種，謂第八識。藏識若無，定不轉故。如伽他說：阿賴耶爲依 故有末那轉/ 依止心及意 餘轉識得生// 阿賴耶識俱有所依，亦但一種，謂第七識。彼識若無，定不轉故。論說藏識恒與末那俱時轉故。

셋째는 동시 발생적 의지처(俱有依)인데, 이 동시 발생적 의지처의 경우 식의 그룹들 간에 일치하지 않는다.

시각 등 다섯 식(五識)의 경우 각각 네 종류의 의지처가 있다. 첫째 [각각의 식과 동일한 인식대상을 취하는 인식능력(同境根)은 눈 등 다섯 인식능력 각각이 연계되어 있는 자기 식(自識)을 지칭하며, 둘째 분별하는 인식능력(分別根)은 다섯 식과 동시적이며 동일한 인식대상을 취하는 사유(意識)를 지칭하며, 셋째 번뇌 영향 하에 있거나 그 영향 밖의 청정한 인식능력(染淨根)은 제7말나식을 지칭하며, 넷째 근본적 의지처(根本依)는 제8식을 지칭한다. 때문에 『성유식론』에서 “따라서 다섯 식의 동시 발생적 의지처에는 반드시 네 종류, 즉 다섯 가지 물질적 인식능력(五色根), 제6식, 제7식, 제8식이 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중] 한 가지라도 없다면 [다섯 식은] 결코 발생하지 않으며, 또 [각각의 식과 동일한 인식대상을 취하는 의지처(同境所依), 분별하는 의지처(分別所依), 번뇌 영향 하에 있거나 그 영향 밖의 청정한 의지처(染淨所依), 근본적인 의지처(根本所依)]가 서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제7말나식의 동시 발생적 의지처는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 “제7의식(意識, mano-vijñāna)의 동시 발생적 의지처는 오직 한 가지, 즉 제8식뿐이다. 장식(=제8식)이 만약 없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제8아뢰야식의 동시 발생적 의지처도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 “아뢰야식의 동시 발생적 의지처도 오직 한 가지, 즉 제7식뿐이다. 그 식(=제7식)이 만약 없다면 [제8식은] 결코 발생하지 않으며, [여러] 『논(論)』에서 ‘장식은 항상 말나식과 동시 발생한다고 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4) 보충 설명

X. 21 241b23; WX. 34 722a3:

解云, 八識所依有漏無漏無有差別.

해설한다. 여덟 식의 의지처의 경우 결함 있음(有漏)과 결함 없음(無漏) 간의 구별은 없다.

案: 이 해설은 번뇌 영향 하에 있는 여덟 식이든 그 영향 밖의 청정한 여덟 식이든 구별 없이 모두 위 세 종류의 의지처에 의지하여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어지는 여덟 식의 ‘인식대상(所緣)’과 ‘동반되는 심리현상(相應心所)’의 경우, 각 그

롭의 식의 본성이 유루냐 무루냐에 따라 그것들과 관련되는 현상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과는 다름을 지적한 것이다.

5. 인식대상[所緣]

(1) 네 종류의 인식대상 소개

X. 21 241b24c2; WX. 34 722a4-6:

顯所緣者，有其四種，一五識所緣，二意識所緣，三末那所緣，四阿賴耶境。一一門中，先辨有漏，後顯無漏。¹¹⁾

인식대상의 경우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다섯 식의 인식대상, 둘째는 사유의 인식대상, 셋째는 말나식의 인식대상, 넷째는 아뢰야식의 인식대상이다. [네 종류의 인식대상] 각각의 그룹[門]과 관련하여 먼저 결합 있는 [식의 인식대상을 밝히고 이어서 결합 없는 [식의 인식대상을 밝히고자 한다.

(2) 다섯 식[五識=前五識]의 인식대상

X. 21 241bc2-8; WX. 34 722a6-12:

有漏五識，於五境中各唯緣一，謂眼識緣色，乃至身識緣觸。(唯是現量)

결합 있는 다섯 식은 다섯 종류의 인식대상 중 각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하나만을 인식대상으로 한다. 즉, 시각[眼識]은 물질[色]을 인식대상으로 하며 ... 촉각[身識]은 감촉[觸]을 인식대상으로 한다. (결합 있는 다섯 식의 인식은 단지 직접 지각[現量]일 뿐이다.)

若無漏位，依『成唯識論』第十卷有兩師義。

故彼云，“成所作智相應心品，有義，但緣五種現境。『莊嚴論』說，‘如來五根一一皆於五

11)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19,10: de la dmigs par bya baḥi yul bstan pa ni/ sgo re re la yañnam pa bṣi bṣi* yod de/ rnam par śes pa lña dag gis<gi>** dmigs pa dañ/ yid kyi rnam par śes paḥi dmigs pa dañ/ ñon moñs pa can gyi yid kyi dmigs pa dañ/ kun gṣi rnam par śes paḥi dmigs pa bstan paḥo/)은 —門中 다음에 有其四種 이하가 이어지며 先辨有漏, 後顯無漏에 해당하는 번역이 없다. 이어지는 주석의 전개를 고려할 때 현존 한문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중복된 bṣi를 삭제해야 옳다. **P. N.을 따라 gis를 gi로 교정해야 옳다.)

境故轉<轉故>¹²⁾¹³⁾.

有義, 亦能通¹⁴⁾緣三世諸法. 『佛地經論』說, ‘成所作智起三業諸變化事, 決擇有情心行差別, 領受去來現在等義.’¹⁵⁾¹⁶⁾【(亦唯現量, 不通眞智.)】

결함 없는 수행단계[에 속한 다섯 식의 인식대상]와 관련하여 『성유식론』 제10권에는 두 논사의 주장이 있다.

그래서 거기(『성유식론』)에서 “성소작지(成所作智)에 속하는 마음의 경우 어떤 이들은 [有] 다섯 종류의 직접 지각의 대상[五種現境]만을 인식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義]. [예컨대]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에서 ‘여래의 다섯 인식능력 각각은 모두 다섯 인식대상과 관련하여 활동[轉]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하듯이].

어떤 이들은 [성소작지에 속하는 마음의] 세 시점(=過去, 現在, 未來)의 현상 모두를 인식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불지경론(佛地經論)』에서 ‘성소작지는 [몸, 입, 마음으로 짓는] 세 종류의 행위로 드러나는 온갖 일을 만들어내며, [8만 4천] 중생의 특수한 기질[心行]을 판단하며, [그들로 하여금] 과거, 미래, 현재 등의 이익[義=義利]을 향유하게 만든다.’ 라고 설하듯이.” 라고 말한다. ([결함 없는 다섯 식의 인식] 역시 [결함 있는 다섯 식의 인식처럼] 직접 지각[現量]일 뿐이지만, 궁극적 진리 차원의 앎[眞智]에 귀속되지는 않는다.)

案: * 상응하는 티벳어역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적어도

- 12) 현존 『성유식론』 원문(각주16)과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19.21-520.1: de bṣin gśegs paḥi dbaṅpo lña po dag ni thams cad kyañyul lña po dag la hjug paḥi phyir ro ṣes bśad pas so ṣeḥo)에 비추어 불 때 故轉은 轉故로 교정하는 것이 옳다.
- 13) 『大乘莊嚴經論』卷3, 『菩提品』(T. 31, 604c29-605a6): 自下次說別轉變化. 偈曰: 如是五根轉 變化得增上/ 諸義遍所作 功德千二百//釋曰: 此偈顯示轉五根變化. 此變化得二種增上, 一者得諸義遍所作, 謂一一根皆能互用一切境界故, 二者得功德千二百, 謂一一根各得千二百功德故.
- 14) 현존 『성유식론』 원문에는 遍으로 되어 있다.
- 15) 『佛地經論』卷3 (T. 26, 303a15-22): 成所作智相應心品, 有義, 唯緣五種現境. 『莊嚴論』說, “如來五根一一皆於五境轉故.” 如實義者, 成所作智亦緣一切於一切境皆無障. 故『莊嚴論』說, “成所作智於一切界起種種化, 無有數量不可思議, 作諸有情一切義利.” 此經中說, “成所作智起作三業諸變化事, 決擇衆生八萬四千心行差別, 宣說對治作四記論, 受領去·來·現在等義.”
- 16) 『成唯識論』卷10 (T. 31, 56c22-26): 成所作智相應心品, 有義, 但緣五種現境. 『莊嚴論』說, “如來五根一一皆於五境轉故.” 有義, 此品亦能遍緣三世諸法, 不違正理. 佛地經說, ‘成所作智起作三業諸變化事, 決擇有情心行差別, 領受去來現在等義.’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0.3-6: bya ba sgrub paḥi ye ṣes thugs sprul paḥi phrin las mnam pa gsum bskyed pas sems can rnams (kyi) sems kyi spyod pa tha dad pa gtan la dbab pa dai/ ḥdas pa dai/ ma ḥoṅs pa dai/ de ltar gyi don rnams so sor myoṅbar mdsad do)은 사역형 구문을 통해 領受의 숨은 주어가 ‘중생’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동이 본 사본에서는 이것을 포함하여 이어지는 다섯 부분의 협주들()안의 작은 글씨의 한문)이 없었을 것이다. 직전의 협주 ‘唯是現量’에 대한 티벳어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최동이 이것들에 대한 번역 자체를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 여타 협주들은 언제 누가 작성한 것일까? 최동 이후 『해심밀경소』를 전승한 그룹에서 『성유식론』 등에 근거하여(각주17과 20의 볼드 참조) ‘여타 식의 량(量)과 이제(二諦) 귀속’을 보충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물론 원측 자신이나 그의 사후 제자 그룹에서 이 협주들이 이미 작성되었으며, 최동이 본 사본과 다른 계통으로 전승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3) 사유[意識]의 인식대상

X. 21 241bc8-11; WX. 34 722a12-15:

有漏意識遍緣十八界，諸論皆同。【(通量非量，或現或比)】

결함 있는 사유는 열 여덟 기반 모두를 인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 논[의 설명]이 모두 일치한다. (결함 있는 사유의 인식은) 정당한 인식수단[量=正量]과 잘못된 인식수단[非量] 모두에 귀속되며, [정당한 인식 수단 안에서] 때로는 직접 지각[現=現量]이기도 하고 때로는 추론[比=比量]이기도 하다.)

若已轉依，亦遍緣諸法。故唯識云，“妙觀察智相應心品，緣一切法自相共相，皆無障礙。”¹⁷⁾【(唯是現量，通真俗智)】

의지처의 변화[轉依] 이후에도 [사유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현상을 인식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 “묘관찰지(妙觀察智)에 속하는 마음은 모든 현상의 고유한 특징[自相]과 공통된 특징[共相]을 함께 인식대상으로 하여 막힘이 없다.” 라고 말한다. (결함 없는 사유의 인식은 오직 직접 지각일 뿐이며, 궁극적 진리 차원의 앎과 세상의 진리 차원의 앎[俗智] 모두에 귀속된다.)

(4) 말나식의 인식대상

X. 21 241bc11-18; WX. 34 722a15-b4:

17) 『成唯識論』卷10 (T. 31, 56c21): 妙觀察智相應心品，緣一切法自相共相，皆無障礙。二智所攝。

有漏第七, 唯緣第八賴耶見分, 執爲我法. 諸論悉同.【(唯是非量)】

결함 있는 제7식은 오직 제8아뢰야식의 지각능력의 측면(見分)을 인식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고유한 본질을 가진 '자아[我]와 '현상[法]'이라 집착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 설명]이 일치한다.([결함 있는 제7식의 인식은 단지 잘못된 인식 수단일 뿐이다.)

無漏末那, 依唯識論, 三釋不同.

故彼云, “平等性智相應心品, 有義, 但緣第八淨識. 如染末那緣藏識故.

有義, 但緣眞如爲境. 緣一切法平等性故.

有義, 遍緣眞俗爲境. 『佛地經』說‘平等性智證得十種平等性’¹⁸⁾故, 『莊嚴論』說, ‘緣諸有情自他平等, 隨他勝解, 示現無邊佛影像’¹⁹⁾故.”²⁰⁾【(唯是現量, 通眞俗智)】

결함 없는 말나식에 대해서는 『성유식론』에 상이한 세 해석이 존재한다.

그래서 거기서 “평등성지(平等性智)에 속하는 마음과 관련하여 어떤 이들은 오직 제8아뢰야식 속 청정한 식[第八淨識]만을 인식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번뇌 영향 하의 말나식이 장식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치]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평등성지에 속하는 마음은] 진여(眞如)를 인식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이 평등하다는 본질[一切法平等性]을 인식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평등성지에 속하는 마음은] 궁극적 진리[眞]와 세상의 진리[俗] 모두를 인식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불지경(佛地經)』에서는 ‘평등성지는 열 가지 측면의 평등한 본성을 경험한다.’ 라고 말하지만, 『대승장엄경론』에서는 ‘[보살은] 중생을 인식대상으로 하여 나와 그들이 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그들의 지적 성향[勝解]에 맞추어 무한한 붓다의 모습[影像]을 보여준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18) 『佛說佛地經』(T. 16, 721c27-722a7): 復次妙生! 平等性智者, 由十種相圓滿成就. 證得諸相增上喜愛平等法性圓滿成故. 證得一切領受緣起平等法性圓滿成故. 證得遠離異相非相平等法性圓滿成故. 弘濟大慈平等法性圓滿成故. 無待大悲平等法性圓滿成故. 隨諸衆生所樂示現平等法性圓滿成故. 一切衆生敬受所說平等法性圓滿成故. 世間寂靜皆同一味平等法性圓滿成故. 世間諸法苦樂一味平等法性圓滿成故. 修殖無量功德究竟平等法性圓滿成故.

19) 『大乘莊嚴經論』卷13, 「行住品」(T. 31, 657a24-b1): 次說菩薩四種攝衆生. 偈曰: 欲樂及平等 增上與徒衆/ 四心於諸地 攝受一切生// 釋曰. 四種攝衆生者, ... 二平等心攝. 由入初地得自他平等心攝故. ...

20) 『成唯識論』卷10 (T. 31, 56c14-19): 平等性智相應心品, 有義, 但緣第八淨識. 如染第七緣藏識故. 有義, 但緣眞如爲境. 緣一切法平等性故. 有義, 遍緣眞俗爲境. 『佛地經』說‘平等性智證得十種平等性’故. 『莊嚴論』說, ‘緣諸有情自他平等, 隨他勝解, 示現無邊佛影像’故. 由斯, 此品通緣眞·俗二智所攝, 於理無違.

말한다. (결함 없는 말나식의 인식은 오직 직접 지각일 뿐이며, 궁극적 진리 차원의 앎과 세상의 진리 차원의 앎 모두에 귀속된다.)

(5) 아뢰야식의 인식대상

A. 결함 있는 아뢰야식의 인식대상

X. 21 241bc18-242a1; WX. 34 722b4-11:

有漏賴耶所緣境，諸論不同。

若依『瑜伽』五十一，唯說二種。故彼云，“謂若略說，阿賴耶識由於二種所緣境轉。一由於別內執受故，二由於別外無分別器相故。”²¹⁾

若依『成唯識』第二卷前文，緣三種境，謂外器世間有漏種子及有根身。

若依『唯識』第二後文，緣四種境，²²⁾前三之外更加法處實色。故彼云，“略說此識所變境者，謂有漏種十有色處及隨法處所現實色。【唯是現量】

결함 있는 아뢰야식의 인식대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 설명]이 불일치한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제51권에서는 두 종류만을 설한다. 그래서 거기서 “간략히 말해 아뢰야식은 두 종류의 인식대상으로 말미암아 활동한다[轉]. 왜냐하면 [아뢰야식]이 첫째 내적인 생명유지 작용[內執受]*을 식별하며, 둘째 외적인 비분별적인 물질 토대의 특징[外無分別器相]을 식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성유식론』 제2권 앞 문장에 따르면, [결함 있는 아뢰야식]은 세 종류, 즉 외적인 물질 토대[外器世間], 결함 있는 종자[有漏種子], 인식 능력을 갖춘 몸[有根身]을 인식대상으로 한다.

『성유식론』 제2권 뒷 문장에 따르면, [결함 있는 아뢰야식]은 네 종류, [즉] 앞의 세 종류(=外器世間, 有漏種子, 有根身) 외에 다시 사유대상 영역인 실재하는 물질[法處實色]까지 인식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 식의 변화 결과인 인식대상[所變境]은 간략히 말해 결함 있는 종자, 열 가지 물질적 영역[十有色處]**, 사유대상 영역에 속한,

21) 『瑜伽師地論』 卷51, 「攝決擇分·五識身相應地·意地」(T. 30, 580a2이하): 云何建立所緣轉相? 謂若略說, 阿賴耶識由於二種所緣境轉. 一由於別內執受故, 二由於別外無分別器相故. 了別內執受者, 謂能了別遍計所執自性妄執習氣及諸色根根所依處.

22) 한문 구문 상 이 구 앞에 謂를 보충해야 자연스럽다. 티벳어역도 謂에 상응하는 번역이 없는 점이 흥미롭다.

[신비한 능력을 갖춘 선정[威德定]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실재하는 물질[隨法處所現實色]²³⁾이다.” 라고 말한다. (결함 있는 아뢰야식의 인식은 오직 직접 지각일 뿐이다.)

案: * 뒷 부분의 『경문』 ‘제8아뢰야식이 몸에 붙어서 執持한다’에 대한 주석(X. 21 246a19이하; WX. 34 731a11이하)에서 執持를 執受로 이해하고, 그 執受의 대상으로 ‘물질적 인식기관[色根]과 ‘수태시[於相續正結生時]의 자기 몸[自體]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內執受를 실험적으로 ‘내적 생명유지 기능’으로 의역해 보았다.

** 원측의 생각의 결을 따르면, ‘열 가지 물질적 영역’은 앞선 ‘외적인 물질 토대’와 ‘인식 능력을 갖춘 몸’을 포괄하는 지칭이다. 따라서 전자는 ‘다섯 가지 물질적 인식대상[五色境]’, 후자는 ‘다섯 가지 물질적 인식능력(또는 기관)[五色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B. 마음[心], 심리현상[心所], 비조건적 현상[無爲法] 등이 아뢰야식의 인식대상이 아닌 이유

X. 21 242a1-4; WX. 34 722b11-14:

問. 何故此識不緣心等?

解云, 如『唯識』第二卷云, “異熟識變, 必有實用. 若變心等, 便無實用. 相分心等不能緣故. 變無爲等亦無實用. 故異熟識不緣心等.”²⁴⁾

묻는다. 무슨 까닭에 이 식(=결함 있는 아뢰야식)은 마음[心] 등[으로 변화하여 그것들을 인식대상으로 하지 않는가?

해석한다. 『성유식론』 제2권에 따르면, “[결함 있는 아뢰야식인] 이숙식(異熟識)이 변화하는 경우 [그 변화 결과인 물질 등에는] 반드시 실질적 작용[實用]이 있지만, 그

23) 『成唯識論述記』卷3(本) (T. 43, 325c이하): 論. 略說此識至所現實色. 述曰. ... 五根唯內唯緣實境. 第八亦緣法處實色, 謂威德定所行境色, 如『瑜伽論』五十四卷彼極分別, 應如彼會.* 言隨者, 是攝義, 即是法處攝色之異名也.

* 『瑜伽師地論』卷54, 「攝法擇分·五識身相應地·意地」(T. 30, 597b4이하): 如是一切色蘊所攝色中, 九種是實物有, ... 墮法處色亦有二種, 謂實有假有. 若有威德定所行境, 猶如變化, 彼彼彼境及彼相應識等境色是實物有. ...

24) 『成唯識論』卷2 (T. 31, 11a21-27): 何故此識不能變似心心所等爲所緣耶? 有漏識變, 略有二種, 一隨因緣勢力故變, 二隨分別勢力故變, 初必有用, 後但爲境. 異熟識變, 但隨因緣, 所變色等必有實用. 若變心等便無實用. 相分心等不能緣故. 須彼實用, 別從此生. 變無爲等亦無實用. 故異熟識不緣心等.

변화 결과가 마음[심리현상[心所]] 동일 경우에는 실질적 작용이 없다. 왜냐하면 [이
 숙식의 변화 결과이라 하더라도] 지각대상의 측면[相分]일 뿐인 마음[심리현상] 등은
 [거울 속의 불처럼 유사 인식능력일 뿐이므로²⁵⁾ 무엇인가를] 인식대상으로 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이숙식의] 변화 결과가 비조건적 현상[無爲法] 동일 경우에도 실질적 작
 용이 없다. 따라서 이숙식은 마음[심리현상, 비조건적 현상] 등을 인식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C. 결합 없는 아뢰야식의 인식대상

X. 21 242a4-10; WX. 34 722b14-723a2:

無漏第八²⁶⁾, 依『唯識論』第十, 有兩師義.

故彼云, “大圓鏡智相應心品, 有義, 但緣眞如爲境. 是無分別, 非後得智. 行相所緣不可
 知故.

有義, 此品緣一切法. 『莊嚴論』說‘大圓鏡智於一切境不愚迷故, 『佛地經』說‘(依止)²⁷⁾如來
 智鏡諸處境識衆像現’故, 又此決定緣無漏種及身土等諸影像故.”²⁸⁾【亦唯現量, 通眞俗智】

결합 없는 제8식의 인식대상과 관련하여 『성유식론』 제10권에 두 논사의 주장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대원경지(大圓鏡智)에 속하는 마음에 대해 어떤 이들은 진여만을 인
 식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의 인식은] 무분별지(無分別智)이며 후득지(後得

25) 『成唯識論述記』卷3(本) (T. 43, 327a14이하): 論. 若變心等至不能緣故. 述曰. 相分心心所如化心等, 故不緣之,
 緣便無用. 『深密經』說, “諸變化心無自依心, 有依他心.” 『佛地論』第六卷·此第十亦云, “無自緣慮實體之心, 有
 隨見分所變相分似慮之心, 如鏡中火, 乃至廣說.”

26) 所緣이 보충되면 명시적이겠지만, 티벳어역(ZhT. 68.522.9)은 최듬이 본 사본도 현재본처럼 생략된 형태이
 었음을 보여준다.

27)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2.17-19: de bṣin gśeṅs pa mams kyi me loṅta buḥi ye śes kyi dkyil ḥk-
 hor la brten nas skye mched dai/ deḥi yul la mnam par śes paḥi gzugs brñan dag snañño)와 아래 『불
 지경』 원문에 따라 依止를 보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佛地經論』卷3 (T. 26, 302c13-23): 大圓鏡智相應心品, 若一相說, 唯緣眞如無分別智, 非後得智. 所緣行相不可
 知故. 若具相說, 緣一切法. 『莊嚴論』說, “大圓鏡智, 普於一切所知境界不愚迷故.” *此經中說, “如依圓鏡衆像影
 現, 如是依止如來智鏡諸處·境·識衆像影現.” 言諸處者, 謂內六處, 言諸境者, 謂外六境, 言諸識者, 謂六種
 識, 如是智上有十八界衆像影現, 故知此智緣一切法. 由此鏡智, 於一切時, 緣一切法, 故說如來具一切智. 若
 不爾者, 餘智不定知一切法, 如來不應名一切智.

* 『佛說佛地經』(T. 16 721b12-13): 復次妙生! 圓鏡智者, 如依圓鏡衆像影現, 如是依止如來智鏡, 諸處·境·識
 衆像影現.

28) 『成唯識論』卷2 (T. 31, 11a19-20).

智)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는] 언어적 특징[行相, ākāra]인 인식대상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 부류의 마음은 모든 현상을 인식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대승장엄경론』에서 '대원경지는 모든 인식대상[一切境]에 대해 미혹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설하며, 또 『불지경』에서 '여래의 지혜라는 거울에 의지하여 여러 영역[處], 인식대상, 식(識) 등 수많은 영상[像=影像]이 나타난다.' 라고 설하기 때문이다. 또 이것(=대원경지에 속하는 마음)은 반드시 결합 없는 종자[無漏種子]와 [붓다의] 몸, 땅 등 여러 영상을 인식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결합 없는 제8식의 인식은 결합을 동반한 제8식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단지 직접 지각[現量]일 뿐이며, 궁극적 진리 차원의 얹과 세상의 진리 차원의 얹 모두에 귀속된다.)

(5) 여덟 식의 인식대상과 관련된 여타 특성들은 『성유식론』 등의 논서를 참조하라!

X. 21 242a10-11; WX. 34 723a2-3:

八識緣假實²⁹)境*有爲無爲三世等別廣如『唯識論』等說.

여덟 식의 인식대상이 언어적 현상[假, prajñapti]인지 실재적 현상[實, dravya]인지, 조건적 현상인지 비조건적 현상[無爲]인지,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점 [중 어느 시점에 귀속되는지] 등 특성들[別=差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유식론』 등에서 설한 대로이다.

案: 문맥상 有爲無爲와 三世의 의미상 주어도 '여덟 식의 인식대상'이기 때문에 八識所緣(주어)假境實境(술어1) · 有爲無爲(술어2) · 三世(술어3)等別... 정도가 구조적으로 보다 명료한 문장일 것이다.

29)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3.1-3: / rnam par śes pa brgyad po de dag yul btags paḥam/ rdsas su yod paḥam/ ḥdus byas sam/ ḥdus ma byas sam(/) dus gsum la sogs pa gañla dmigs par byed ces bya baḥi bye brag ni)에 비추어 볼 때 實은 衍字로 보인다.

6. 심리 현상과의 동반 관계[心所相應]

(1) 결합 있는 여덟 식이 동반하는 심리현상

A. 다섯 식이 동반하는 심리현상

X. 21 242a12-18; WX. 34 723a4-10:

言心所相應者。

依『唯識論』護法正義，於五十一心所法中，有漏五識，各與三十四心所相應，謂遍行五，別境五，善有十一，根本惑三，謂貪瞋癡，隨惑有十，謂中二大八。

然善十一中，有兩師義。

故『唯識』第六云，“有義，五識唯有十種。自性散亂無輕安故。

有義，五識亦有輕安。定所引善者亦有調暢故，成所作智俱必有輕安故。”³⁰⁾

無餘心所，如論廣說。

[여덟 식과] 심리 현상과의 동반 관계[心所相應]에 대해 말해 보겠다.

『성유식론』속 호법(護法)의 정설에 의하면, 선 한 가지 심리 현상 중 결합 있는 다섯 식은 각자 서른네 가지 심리 현상, 즉 항상 활동하는[遍行] 다섯 가지*, 개별 대상과 관련된[別境] 다섯 가지**, 선한 것 열한 가지***, 근본 번뇌[根本惑] 세 가지(탐욕[貪], 노여움[瞋], 무지[痴]³¹⁾), 과생 번뇌[隨惑] 열 가지(중간 것 두 가지와 큰 것 여덟 가지)****를 동반한다.

그런데 [이 중] 선한 열한 가지에 대해 두 논사의 주장이 있다.

그래서 『성유식론』 제6권에서 “어떤 이들은 다섯 식에는 [열한 가지 선한 심리 현상 중 ‘평안’을 제외하고] 열 가지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다섯 식은] 그 본성이 산란하여 ‘평안[輕安]’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이들은 다섯 식에도 평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선정(禪定)에 의

30) 『成唯識論』卷6 (T. 31, 31b6-10): 此十一種前已具說第七八識隨位有無 第六識中，定位皆具，若非定位，唯闕輕安。有義，五識唯有十種。自性散動無輕安故。有義，五識亦有輕安。定所引善者亦有調暢故，成所作智俱必有輕安故。

31) 이하 유식 100범의 심소법의 일부이기도 한, 『구사론』 심소법 한역어의 한국어 번역은 모두 이종철(이종철 2015, 197-220)을 따랐다. 필자는 이것들을 한역어로부터의 번역이라기보다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단어의 본래 문맥에 충실한 번역어로 이해하고 있다.

해 인도된 선한 자에게도 ‘평온함[調暢³²⁾, hldana³³⁾’이 있으며, 성소작지가 함께하면(俱) 반드시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위의 서른넷을 제외하고는 결함 있는 다섯 식이 동반하는] 여타 심리 현상은 없다는 점은 논(『성유식론』)에서 자세히 설한 대로이다.

- 案: * 심상[觸], 주의[作意], 감정[受], 표상[想], 의지[思]
 ** 욕구[欲], 분별[慧], 기억[念], 확정[勝解], 집중[三昧]
 *** 확신[信], 전념[不放逸], 평안[輕安], 평정[捨], 수치[慚], 자책[愧], 탐내지 않음 [無貪], 성내지 않음[無瞋], 비폭력[不害], 정진[精進], 무지가 없음[無痴]
 **** 中隨煩惱: 버릇없음[無慚], 뻔뻔스러움[無愧]
 大隨煩惱: 무기력[惛沈], 격앙[掉舉], 확신 없음[不信], 게으름[懈怠], 태만[放逸], 기억상실[失念=忘念], 마음이 산란함[散亂=心亂], 밝게 알지 못함[不正知]

B. 사유가 동반하는 심리현상

X. 21 242a19; WX. 34 723a10-11:

有漏意識，與五十一心所相應，諸論共同，亦無異義。

번뇌 있는 사유는 선한 가지 심리 현상을 동반한다는 점은 여러 논에서 같으며, 이 견도 없다.

C. 말나식이 동반하는 심리현상

X. 21 242a20-23; WX. 34 723a11-15:

有漏末那，護法正義，唯與十八心所相應。故『成唯識』第四云，“然此意俱心所十八，謂(前)³⁴⁾九法八隨煩惱并別境中慧。”解云，前九法者，謂遍行五及四煩惱。四煩惱者，謂我

32) 『成唯識論述記』卷6(분), 論6 (T. 43, 438a13-17): 論. 安謂輕安至轉依爲業. 述曰. 亦牒頌解, 謂輕而安隱. 離重名輕, 調暢名安. 此有二種, 一無漏者, 除有漏麤重, 麤重通三性, 二有漏者, 除煩惱麤重, 唯是善性, 此正對治惛沈一法.

33) Poussin 1928-1929, 342.

34) 이어지는 현존 『성유식론』 문장*, 解云 이하의 前九法者,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4,9: *sña mahi chos dgu dan*) 등에 비추어 볼 때 前을 보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 『成唯識論』卷4 (T. 31, 23b6-7 ... 10-11): 故染汚心決定皆與八隨煩惱相應而生, 謂惛沈·掉舉·不信·懈怠·放逸·忘念·散亂·不正知. ...

知<痴>³⁵⁾·我見·我慢·我愛. 無別心法, 義如論說.

결함 있는 말나식의 경우 『성유식론』의 호법의 정설에 따르면 열여덟 가지 심리현상을 동반한다. 그래서 『성유식론』 제4권에서 “따라서 이 의(意, manas)는 심리현상 열여덟 가지, 즉, 앞의 아홉 가지 현상, 여덟 가지 파생 번뇌(=앞前五識 항목 중의 大隨煩惱), 개별 대상과 관련된 것 중의 ‘분별[慧]과 함께한다.” 라고 말한다. 해설한다. [여기서 앞의 아홉 가지 현상이란 항상 활동하는 것 다섯과 네 가지 번뇌를 말한다. 네 가지 번뇌란 ‘자아의식에 근거한 무지[我痴]’, ‘자아의식에 근거한 잘못된 견해[我見]’, ‘자아의식에 근거한 교만[我慢]’, ‘자아의식에 근거한 애착[我愛]’을 지칭한다. [이상을 제외하고 말나식이 동반하는] 별도의 심리현상은 없으며, 그 의미는 논(『성유식론』)에서 설한 대로이다.

D. 아뢰야식이 동반하는 심리현상

X. 21 242a24b1; WX. 34 723a16-17:

【有漏賴耶, 唯與五種遍行相應. 故論頌云, “觸·作意·受·想·思相應.”³⁶⁾ 無餘心所, 具如論說.】

결함 있는 아뢰야식은 오직 다섯 가지 항상 활동하는 것[遍行]을 동반한다. 그래서 논(『성유식론』)의 『유식삼십승(唯識三十頌)』의 제3계송에서 “[아뢰야식은 항상] ‘심상[觸]’, ‘주의[作意]’, ‘감정[受]’, ‘표상[想]’, ‘의지[思]’를 동반한다네.” 라고 말한다. [이 다섯을 제외하고 동반되는] 여타 심리현상은 없으며, 구체적인 것은 논(『성유식론』)에서 설한 대로이다.

然此意俱心所十八, 謂前九法八隨煩惱并別境慧.

35) 『성유식론』의 관련 부분과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4.13) bdag tu rmons pa에 비추어 볼 때 知는痴의 오기로 보인다. 『成唯識論』卷4 (T. 31, 19a29-b4 ... 22a27-b3): 如是已說初能變相, 第二能變其相云何? 頌曰: 次第二能變 是識名末那/ 依彼轉緣彼 思量爲性相// (5) 四煩惱常俱 謂我癡我見/ 并我慢我愛 及餘觸等俱// (6) ... 其四者何? 謂我癡我見并我慢我愛, 是名四種. 我癡者謂無明, 愚於我相, 迷無我理, 故名我癡. 我見者謂我執, 於非法妄計爲我, 故名我見. 我慢者謂倨傲, 恃所執我令心高舉, 故名我慢. 我愛者謂我貪, 於所執我深生耽著, 故名我愛.

36) 『成唯識論』卷2 (T. 31, 7c14-17): 且初能變其相云何? 頌曰: 初阿賴耶識 異熟一切種// (2b) 不可知執受 處了當與觸/ 作意受想思 相應唯捨受// (3) 卷3 (T. 31, 11b16-19): 此識與幾心所相應? 常與觸·作意·受·想·思相應. 阿賴耶識無始時來乃至未轉, 於一切位恒與此五心所相應. 以是遍行心所攝故.

(2) 결합 없는 여덟 식이 동반하는 심리현상

X. 21 242b1-5; WX. 34 723a17-b3:

無漏八識，皆二十一心所相應，謂遍行五，別境五，善有十一。於中別者，妙觀察智，因位亦得尋伺相應。於藥病等未自在故。若至佛果，尋伺即無。無思成事故。若廣分別，具如諸論。

결합 없는 여덟 식은 모두 스물한 가지 심리현상, 즉 항상 활동하는 다섯, 개별 대상과 관련된 다섯, 선한 열한 가지를 동반한다. 그 중 특수한 경우로서 묘관찰지(妙觀察智)는 원인 단계에서는 [위의 스물한 가지 외에] 반성[尋]과 내성[伺]을 동반할 수 있다. [그 단계에서는] 약, 병 등에 대해 아직 [완전히 알아] 자유롭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붓다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면 반성과 내성은 없다. [붓다의 단계에서는] 애써 따짐[思] 없이 [자연스럽게] 일을 완수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논*에서 설한 대로이다.

案: * 여러 논 중 『성유식론』의 다음 문장(卷第七 T31 36c13-18)을 근거로 곱음 괄호 안의 내용을 보충해 보았다.

有義，尋·伺非所斷者，於五法中唯分別攝，『瑜伽』說彼是分別故。有義，此二亦正智攝。說正思惟是無漏故；彼能令心尋求等故；又說彼是言說因故。未究竟位於藥·病等未能遍知，後得智中爲他說法必假尋伺，非如佛地無功用說。

心意識義具如別章。

心, 意, 識의 의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별도의 주석[別章]에 있는 대로이다.

案: 이상으로 「역주1」의 ‘心, 意, 識의 숨은 의미를 밝힘[明心意識秘密義]’이라는 큰 주제 아래 먼저 일종의 총론인 ‘제8識의 여러 이름의 의미를 밝힘[明第八衆名義]’이 마무리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주석’을 참조하라며 생략하고 있는데, 이 문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원측이 『해심밀경소』 이전에 작성한 주제별 강의록 형식의 문헌이었던 듯하다.

대장경 약호

- T. : 大正新修大藏經 (CBETA 전자판)
X. : 新纂 大日本續藏經 (CBETA 전자판)
WX. : 卍續藏經(藏經書院版),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影印, 民國66(1977).
ZhT. : 藏文 中華大藏經, 中國藏學研究中心大藏經對勘局 對勘*,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1.
(*sDe dge판 저본, Peking·Narthañ·Cone판 대조)
H. : 『韓國佛教全書』, 서울: 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 1977~2004.

圓測 撰, 『解深密經疏』 (X. 21; WX. 34-35; H. 1)

Hphags pa dgoñs pa zab mo ñes par hḡrel pañi mdo rgva cher hḡrel pa (ZhT. 68-69)

玄奘 譯, 『佛說佛地經』 (T. 16)

護法等菩薩 造, 玄奘 譯, 『成唯識論』 (T. 31)

無著菩薩 造, 玄奘 譯, 『攝大乘論本』 (T. 31)

親光菩薩等 造, 玄奘 譯, 『佛地經論』 (T. 26)

無著菩薩 造, 波羅頗蜜多羅 譯, 『大乘莊嚴經論』 (T. 31)

彌勒菩薩 說, 玄奘 譯, 『瑜伽師地論』 (T. 30)

基 撰, 『成唯識論述記』 (T. 43)

長尾雅人. 1982/1987. 『攝大乘論: 和譯と注解』 上/下, 東京: 講談社.

Lamotte, Étienne. 1935. *Samdhinirmocana-sūtra, L'explication des Mystères*, Louvain: Université de Louvain.

Poussin, Louis de la Vallée. 1928-1929. *Vijñaptimatratāsiddhi: La Siddhi de Huian-Tsang*, 2 Tomes, Paris: Librairie Orientaliste Paul Geuthner.

이종철. 2015. 『구사론 계품근품파아품: 신도 영혼도 없는 삶』,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장규연. 2013. 「원측 『해심밀경소』 「심의식상품」 역주(1) - 텍스트 교정을 견해-」 『불교학리뷰』 14: 125-167.